

한국불교의 대표적 밀교종단인 진각종(총인 각해)이 창종 50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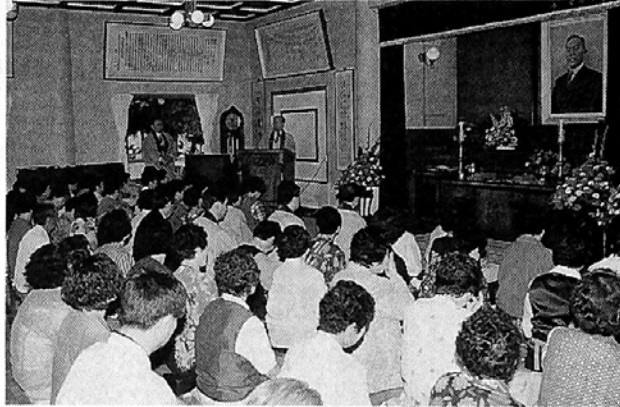
진각종은 지난 12일 오전 10시 락해동리원장 성초교육원장 진당사감인 장등을 비롯하여 종단교회사승 10여 명과 종도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릉도 금강원 종도전에서 창교절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울릉도 여행인당 호당정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 락해동리원장은 "진기 50년을 맞아 종도 회당 순구상대 종사의 생활불교 실천불교의 회당정신

**금강원 성역화**  
**대구 진각회관 개관**  
**다목적 수련원 마련**  
**외국 심인당 개설**

당 개축 및 회당관건립, 창종 50년 기념음악회, 종립학교 전교직원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다.

회당종조 창종 기념 및 성지조성사업은 종조 탄생지인 금강원이 울릉도를 찾는 방문객들의 관광명소화 됨에 따라 1만여명 부지에 종조전등의 건물을 신축하고 생가복원 등 성역화하여 불교포교공간과 불자들을 위한 숙박시설을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오는 10월중으로 기초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회당대종사가 6.25 당시 손수 세운 도량인 서울 밀각심인당도 7백40



◇진각종은 지난 12일 회당 손상규 대종사 탄생지인 울릉도 금강원에서 창교절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 진각종 50년 '도약 다짐'

으로 21세기를 열고 세계가 하나되는 대의를 이룩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2부 법회에서는 성초교육원장의 '창종 50년의 의미를 되새김'이라는 강연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성초교육원장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살행하시는 회당 종조의 의지를 되새겨 전종도가 융행정진하여 불교발전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 12일 울릉도 금강원서 창교절 기념법회

진각종은 창종 50년 기념사업으로 종조탄생지 금강원 성지조성과 2곳의 다목적 수련원마련, 일본 진언종과 교류, 외국 심인당설립, 현대에 맞는 종헌중법개정, 대구 진각회관 개관, 서원가 CD작업, 서울 도선동 밀각심인

경북에 부지를 매입한 뒤 2곳에 다목적 수련원을 건립하고 종도 남골당과 교회사승을 위한 영묘전도 건립한다.

문화행사로는 10월에 서원가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CD를 제작 배포하고 창종 50년기념 음악회를 개최하며 오는 7월말 대구 진각문화회관 개관행사로 회당회회 심포지움과 만다라전을, 11월에는 종단차원의 인도순례법회를 개최한다.

울릉도=김원우 기자



◇TV 대중공사는 한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 송가와 함께 풀어나가고 있다.

## 화제 프로 btn 'TV 대중공사'

## 시사전문프로 '자리매김'

불교와 사회·환경등 집중진단

한 주간에 있었던 주요사건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불교TV 간판 시사프로그램 TV대중공사(진행 송사성 제작국장)가 회를 거듭할 수록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프로는 지난 3월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체의 문제점 진단을 시작했다. TV대중공사는 얼마전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사찰법화 문제를 '이 교도의 해탈, 불교도의 대응'이라는 주제아래 집중진단, 다종교사회에서의 종교의 역할과 그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힘을 키워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또 부처님 오신날의 행사를 진단하는 '달라지는 부처

님 오신날', 불교출판의 현황과 미래를 점검한 '불교출판을 살려야 한다', '불교환경운동의 현대적' 등 다양한 문제들을 집중분석 진단했다.

담당 김형준PD는 "각종 현안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인식을 불자들에게 각인시키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함께 강구코자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TV대중공사는 앞으로도 도심사찰의 건축과 장엄, 인터넷시대와 불교 등 다양한 문제들을 진단해 불자들의 안목과 인식을 넓혀나가는 데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자 기자

## "물질우선 과학만능 바로잡자"

日 료왕사서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불교문화를 통해 한·일 양국간의 우의와 신임을 증대하는 제17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일본 일광 료왕사(日光 輪王寺)에서 개최됐다.

'불교와 산악신앙'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한국대표를 일주(조계종 총무원장) 해초(태고종 총무원장)스님 등 각종단 대표스님과 서문각(진흥원 이사장)박사를 비롯 회원 1백여명이 참석, 21세기를 맞이하는 세계의 조류에 비해 양국 불교도가 책임져야 할 사명을 토론했다.

대회를 마치고 양국 불교도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근대 문명을 구축한 합리주의와 과학문명 물질우선의 원리가 포화점에 달해서 내부모순을 노

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릇된 과학만능주의의 자세를 바로 잡고 부처님이 설하신 광대무변의 대자비심을 세계평화구현의 출발점으로 삼아 정진하자"고 다짐했다.



◇제17차 한일불교문화교류 일본대회.

## 분류사찰 주지스님 모임 태고종 전통사찰협 구성

태고종(총무원장 해초)의 선암사와 신촌 봉원사를 비롯한 종단 신하 전통사찰(54년 이전 사찰) 주지스님들의 모임인 전국 전통사찰협의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수년간 물의를 빚어온 전통사찰 조·태분규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해초스님(총무원장)을 비롯한 태고종단 간부스님과 지하스님(선암사 주지) 대운스님(봉원사 주지) 등 9곳의 전통사찰(법안 피해사찰) 주지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가칭) 전국 전통사찰협의회를 구성하여 불교와 종단발전에 이바지 하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전통사찰 주지스님들은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불교의 미래상을 위해 '종단간 분류'라는 말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바탕 위에서 종단과 불교의 통합을 도모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했다. 또 전통사찰소속문제 제기와 관련, 조계종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동종교로 대체 나갈 수 있도록 사찰소속소송을 관례집을 발간하는 등 이에따른 방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10일 오후 2시 신사 4명이 경북경내 박물관 앞을 지나면서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왜 새 박물관을 짓기도 전에 박물관 문을 닫아 관한 고생을 시키느냐"는 한 신사의 불평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몰랐지만 박물관을 철거한다고 할 때 자체는 잘한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또다른 한 명이 말을 받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휴관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예정된 일이었다.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은 옛 조선총독부건물로 대표적인 일제잔재이기 때문에 이를 철거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정부의 대외명분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경심(?)마저 표현했

을 정도였다. 그런데 박물관이 문을 닫은 지금에 와서 몇몇 언론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문화대국이라고 내세우면서 어떻게 다섯달 동안이나 나라의 중앙박물관이 기능을

정지하며, 어떻게 7년 동안이나 나라를 대표하는 박물관 없이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어찌 중앙박물관을 철거 일제잔재를 청산하지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에 찬사의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오늘

새 박물관을 지은 후 이전 및 철거작업이 이뤄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는 순리적 절차다. 명분이 우선인지 국익이 우선인지 당연히 재고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다. 불위에 올려놓은 냄비와 같이 어제와 오늘을 다르게 사는 우리에게 모습이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을까. 계획성없고 뒷북이나 치는 시대에 뒤진 의식수준 나라 밖에서 웃음거리나 되지 않기를 걱정이다. 이런 행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결국 해외토픽의 단골 손님일 수밖에 없다.



### 목탁소리

한명우 <취재2부 기자>

### 일관성 없는 문화의식

은 왜 그런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고 혼란을 야기시키느냐고 아우성이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불교TV가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앞두고 제작, 지난 초과 일에 반영한 특별 다큐멘터리 2부작 고려대장경 (PD 최세영)을 통해 지천사(외국사신들의 수행원들이 머물던 곳)가 경관의 해인사 운반과정중 머물렀던 것으로 새롭게 밝혀지면서 당시 지천사 자리인 현재의 프라자 호텔에 안내석판 설치와 대장경 복사본 관광상품 개발등이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 해인사 경판 해로 운반설 '부상'

불교TV 초파일 특집 '고려대장경' 방영이후 시청앞 프라자호텔에 지천사터 안내석판 논의 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조성 1백 50년 뒤인 조선대조 7년 강화도에 있던 고려대장경을 합천 해인사로 옮긴 경로가 기존의 육로설(한강수계~낙동강수계)보다는 해로(서해~남해~해인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구체적 근거 제시로 새롭게 설명한다. 또한 지금까지 대장경판의 대부분이 자자나무인 것으로 알려졌던 것도 박산전 교구(경주대 임학과)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샅나무, 돌배나무가 전체의 74%

## 방송가 소식

### "문화재 복원 최선의 방법 찾자"

#### 불교TV 6.25특집 '6.25소실 문화재 복원'

불교TV는 오는 25일 6.25특집프로그램의 하나로 6.25소실 문화재 복원 (가제, PD 조상호, 윤정형)을 방송한다.

이 프로그램은 폐사자인 김천 쌍계사와 현재 복원을 준비 중인 쌍계사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병조의 이야기소(PD 나성근)도 6.25를 맞아 해병의 아버지란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군포도에 관심과 열정을 쏟은 소실된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와 있

#### BBS·해인사축구단등 23일 천선경기

불교방송 축구회와 해인사 승려축구단, 김흥국씨가 이끄는 연연회 회오리 축구단이 오는 23일 합천 해인사 운동장에서 한판 축구경기를 펼친다.

이번 천선축구경기는 불교방송 축구회가 오래전부터 기획해 온 것으로 불자가수 김흥국씨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성사됐다.

김흥국씨는 2002년 월드컵도 한국에서 유치되고 또 불교계도 월드컵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기에 이번과 같은 축구경기도 무척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축구경기를 통해 불교방송 축구회와 해인사 승려축구단은 신심과 건강을 도모하고 포교의 원력도 한층 다짐 계획이라고.

불교방송 축구회는 앞으로 총림순회 축구대회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행운을 드리는 108 이야기 !!

## 산중의 고고한 불교 생활불교를 주장하는 우학스님 수필집 !!

### 저저는 맨날 고기 먹고...

홀로 태어나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는 우학 스님의 세상이야기!! 웃고, 울고, 찌푸리는 우리의 이야기, 부처님의 이야기!

전3권·1권 5,500원

우학스님 수필집

눈에 확 들어오는 숙녀가 있었다. 내앞에 섰는데, 키도 늘씬한 미모의 아가씨였다. 마주오던 사람은 다 한번씩 쳐다 보고 갈 정도로 겉보기에는 괜찮은 여자였다. 지계를 진,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뒷쪽에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모르고 지계의 짐으로 그녀의 어깨를 쳤다. 그녀는 주저하지도 않고 내 뺐었다. "이 시발, 눈까리는 뭐하는데 달고 다니노!" - 본문 중에서 -

「좋은인연」 (053) 475-3706~7

### 우학 스님의 새로운 불교 강의법!

체계적인 이론 서적 · 기초에서부터 경전까지 !!

- 1 새로운 불교 공부/값7500원  
전국 불교대학 및 신도회에서 교재로 채택하고 있는 불교 입문 교리서
- 2 불자수행지침서/값10,500원  
불공, 천도재, 방생 등 모든 불교의식을 알기 쉽게 안내한 완벽한 의식집
- 3 부처님은 왜 선을 가르쳤나요?  
어린이와 함께 읽는 본격교리 문답서, 각 불교 신문에서 필독서로 소개된 소중한 책, 많은 그림이 이해를 돕는다. (값 4500원)
- 4 불교한자 시리즈 ①~⑧  
사경, 경전공부, 한자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예불, 반야심경, 천수경, 화엄경, 약찬게, 법성계, 아미타경, 금강경 등 총 8권 (값 각 권 별도)
- 5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上), (下)  
인생 교과서인 금강경에 대한 새로운 해설집 이야기를 곁들인 재미있고 알기쉬운 내용과 강의로 우리의 영혼을 편안하게 한다. (값 (上)5800, (下)5600)

역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특별한 책!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불서의 앞날을 새로이 이끌어 가는 젊은 출판사, 좋은인연 055)475-3707